

한국 부부의 부부문제해결과정\*  
- 자아상태, 문제인지, 문제해결행동을 중심으로 -  
The Marital Problem Solving Process Among Korean Married Couples  
- Ego States, Problem Perception, Problem Solving Behaviors -

한국가족상담교육연구소  
책임연구원 盧致英  
이화여자대학교 가정관리학과  
조 교 수 崔惠卿

Korean Institute of Family Counseling & Education  
Senior Researcher : Chi-Young Noh  
Dept. of Home Management Ewha Womens'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 Hye-Kyong Choi

〈목 차〉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및 논의 |
| II. 이론적 배경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is study regarded the marital problem solving as the process of ego states, marital problem perception, and marital problem solving behaviors, and was to verify that the match of husband and wife in that process differed in marital adjustment.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225 married couples for 1~10 years.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summarized as following: 1) Husband/wife's marital adjustments differed in accordance with marital problem solving behavior matches between husband and wife. 2) Marital problem solving behaviors were the most effected by marital problem perception, and were indirectly effected by

\* 본 논문은 박사학위 논문의 일부임.

ego states. Particularly, marital problem solving behaviors was the more effected by perception of husband than of wife.

## I. 서론

현대사회에 들어서면서 이혼이 증가함에 따라 부부관계의 성공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부부문제해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Fitzpatrick, 1988).

부부문제해결은 일련의 적응과정(Heppner & Krasukopf, 1987)으로 이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온 행동에만 초점을 두었지만, 최근의 부부문제해결모형은 인지적 측면을 강조하여(Fitzpatrick, 1988 ; Cappella, 1987 ; Lazarus & Folkman, 1984 ) 부부 각자가 문제상황을 어떠한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문제해결행동이 달라질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문제상황인지에서는 부부 각자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Grancold & Jordan, 1994). 개인적 특성 중에서도 성격은 개인의 경험적 측면을 함축하는 자아상태로 측정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변수이다. 특히 부부간의 자아상태 차이는 두 사람이 부부문제 상황에 대해 바라보는 시각차이를 설명할 수 있으며, 자아상태와 인지차이로써 사람들이 표현하는 많은 행동들을 파악하고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부부문제해결은‘자아상태-문제인지-문제해결행동’의연 계성을 갖는 적응과정으로 설명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부부문제해결 과정에는 부부관계의 역동성이 반영되어지며,부부관계의 역동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한국사회의 가부장적 이념은 부부관계에도 영향을 미쳐서 부부관계를 남편이 주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김 성희, 문 숙재, 1989 ; 최 규련, 1988). 뿐만 아니라 이러한 가부장적 이념은 남성과 여성의 결혼에 대한 다른 기대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남편은 결혼에서 경제적 도움을 제공하는 대신 그밖의 다른 도움을 아내로부터 제공받을 것을 기대한다. 반면 아내는 남편의 경제적 도움을 얻기 위해서 남편

에게 순응하며 결혼을 유지하기 위한 책임을 지는 것을 자신의 적응전략으로 사용한다(권 희완, 1992 ; 조 혜정, 1986).

이상의 선행연구들은 가부장적 이념이 부부관계에 반영되어짐을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한국에서 이루어진 부부문제해결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문제해결을 위한 행동들을 서술적인 수준에서 분류하여 그 행동의 원인을 파악하는 데 그치고 있을 뿐 부부관계의 역동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유 은희, 1994 ; 최 규련, 1994; 최 혜경, 노 치영, 1994 ; 이 정순, 1991 ; 김 양희, 1988 ; 김 정옥, 1985).

이러한 취지에서 본 연구는 남편과 아내의 자아상태, 부부문제인지 및 부부문제해결행동의 조화가 남편과 아내의 결혼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살펴보고, 결혼적응의 차이를 가져오는 과정을 밝혀보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부부문제해결 모형들

부부문제해결을 적응의 개념으로 설명하는 모형들로서는 인지에 따른 행동과정을 강조하는 스트레스 대처모형, 부부관계적 측면에서 부부간의 행동의 상호조화를 강조하는 갈등해결 모형과 부부간의 자아상태에 의한 상호조화를 설명하는 교류분석 모형이 있다.

우선 스트레스 대처모형(Lazarus & Folkman, 1984)은 개인의 적응이 스트레스에 대한 인지와 대처행동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고 하면서, 특히 인지의 매개 역할을 강조하였다(Parkes, 1984). 또한 Lazarus와 Folkman(1984)은 스트레스 인지 및 대처과정에서 나타나는 개인차가 바로 성격차 임을 개념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갈등해결모형에서는 부부의 결혼적응이 갈등해결 행동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Gottman, 1993 ; 유 은희, 1994). 즉 부부간에 상호 역기능적인 행동을 할수록 불만족한 결혼생활을 하는 부부들이 많다는 것이다. Fincham과 Bradbury(1987)에 의하면, 부부간에 서로 다른 갈등해결행동을 사용하는 것은 갈등상황이나 배우자 행동에 대한 귀인(attribution)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부부간의 인지차를 강조하고 있으며, 또다른 연구자들은 이러한 차이가 사회화에 의한 성격차에 기인한다고 보고 있다(Heavey, Layne, & Christensen, 1993 ; Christensen & Heavey, 1990 ; 현 은민, 1994).

교류분석 모형에서는 성격이 일련의 행동과 사고, 감정과 일관성을 갖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성격을 자아상태로 제시하여 자아상태간의 교류를 통해서 부부간의 상호적응을 설명하고 있다. 이 모형에서의 자아상태는 5가지 기능으로 나타난다. 5가지 자아상태 기능은 비판적 부모(Critical Parent : CP), 양육적 부모(Nurturing Parent : NP), 어른(Adult : A), 자유로운 아이(Free Child : FC)와, 순응하는 아이(Adapted Child : AC)이다. CP의 특성은 이상이 높고 양심적이며 의무나 책임을 다하는 반면, 비판적이고 독단적이며 융통성이 없다. NP는 상대방과의 공감을 잘 하며 헌신적이며 따뜻한 반면, 과보호적일 수 있다. A는 심사숙고하는 태도, 현실에 대해 객관적으로 탐색,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계산을 하는 기능을 한다. FC는 창의적이고 자발적, 적극적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지나칠 경우에는 욕구충족에 급급하고, 자기중심적이라는 단점이 있다. 그리고 AC는 타인들로 부터 착한 아이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주변 환경에 적응을 잘하는 장점이 있지만, 지나칠 경우에는 의존적이고 자신을 억제하며 열등감이 심하고 주변의 반응에 민감한 단점을 갖고 있다(우 재현, 1995a).

이러한 자아상태들은 부부간에 상호적응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즉 부부간에 상호적응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부가 NP, A, FC로 상호 교류하며, 부부간에 CP와 AC가 높을 경우에는 부적응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우 재현, 1995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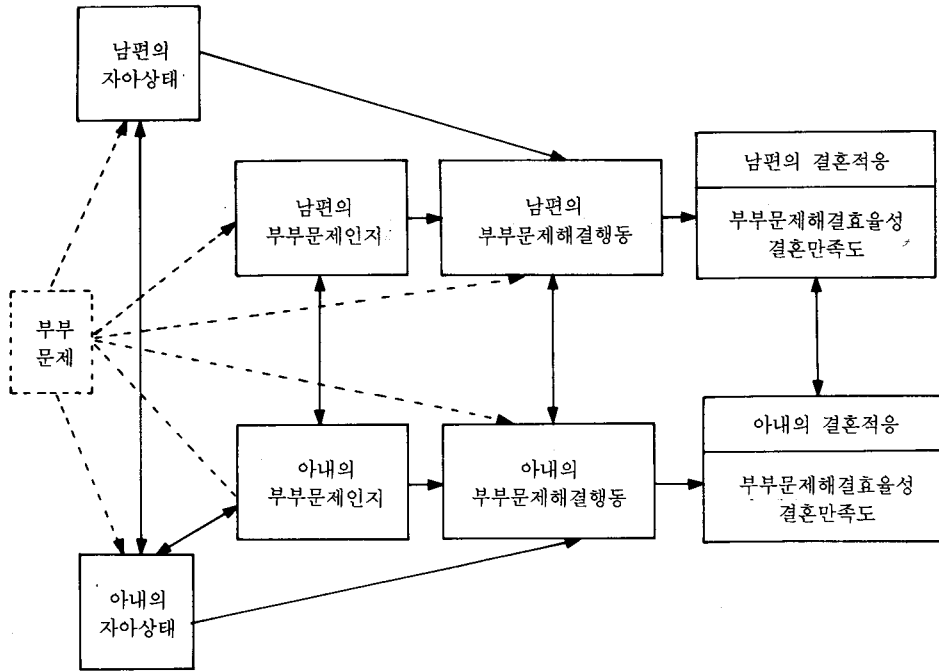
이상의 스트레스 대처, 갈등해결, 교류분석 모형들은 모두 개인 또는 부부가 문제상황에 직면해서 어떻게 효율적/비효율적으로 적응하느냐에 관심을 두고 있다. 특히 스트레스 대처나 갈등해결 모형은 적응의 차이를 가져오는 행동들로서, 접근-회피행동과 적응의 효율성 면에서 긍정적-부정적 행동으로 서로 비슷하게 분류하고 있다(Choi, 1992 ; Holroyd, Reynolds, & Wigal, 1989 ; Miller, Lefcourt, Ware, & Saleh, 1986). 또한 이 3가지 모형들은 실증연구들을 통해서 적응의 차이를 가져오는 과정으로서 인지와 성격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있는데 특히 인지의 매개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으며(Lazarus & Folkman, 1984 ; Fincham & Bradbury, 1987 ; Heavey, Layne, & Christensen, 1993 ; 우 재현, 1995a), 갈등해결이나 교류분석 모형에서는 부부간의 상호조화를 강조하고 있다(Christensen & Heavey, 1990; 유 은희, 1994; 우 재현, 1995a).

이와같이 부부 각자가 결혼생활에서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므로써 결혼적응도를 높인다는 점에서 대처나 갈등해결, 교류분석을 부부문제해결이라는 좀 더 큰 틀에 포함시킬 수 있다. 실례로, Heppner와 Krauskopf(1987)은 문제해결과대처를 같은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Witteman(1988)은 갈등을 두 사람중 어느 한 편이 상대방을 방해물로 인지하는 상황으로 정의하면서, 갈등은 부부공동체에 대해 환경적 자극이 주어지는 상황으로 정의하는 문제속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한다. 특히 자아상태의 부부간 상호조화는 부부문제해결을 예측케 하는 적절한 변수이다(최 혜경, 박 의순, 노 치영, 1994). 그러나 이들 모형들은 부부문제해결에서 각각 과정적 측면과 관계적 측면을 잘 설명하는데 적용될뿐, 통합적인 관점을 제시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 2. 연구모형과 연구가설 설정

이상의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연구모형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 및 가설을 설정하였다.



<그림 1> 연구 모형

연구문제 1. 남편과 아내의 문제해결행동의 조화에 따라서 결혼적응은 차이가 나는가?

연구가설 1-1. 남편과 아내의 문제해결행동의 조화가 상호 기능적일

수록, 남편과 아내의 결혼적응은 높을 것이다.

연구문제 2. 남편과 아내의 자아상태 조화, 문제인지 조화와 문제해결

행동 조화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연구가설 2-1. 남편과 아내의 자아상태 조화와 문제해결행동의 조화의 관계에서 문제인지 조화는 매개적 역할을 할 것이다.

### Ⅲ. 연구방법

#### 1. 연구설계

##### 1) 연구절차 및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1995년 7월 14일~8월 19일에 측정도구 구성과 문항수정을 위한 두 차례의 예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측정도구의 개념적 타당성과 신뢰도를 파악하였다. 본 조사는 1995년 9월 11일~9월 30일에 서울 및 근린 지역에 거주하는 중상층의 결혼 1년~10년 이내의 기혼 부부들 250 쌍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조사방법은 snow-ball sampling 을 사용해서 연구대상을 표집하였다. 회수율은 94% 이며, 최종분석에서는 총 450 명의 225 쌍을 사용하였다.

본 조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들에 대한 준거관련 타당도를 구하기 위하여 부부문제가 심각하여 병원이나 상담소를 찾는 임상집단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

였다. 이들 임상집단의 자료는 1995년 9월 11일~10월 11일에 수집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임상집단은 남자 19명과, 여자 9 명이었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들의 특징을 종합해 볼때, 연령수준이나 결혼기간면에서 성인중기에 해당하며, 교육수준이나 직업수준, 수입수준에서 중상층이며, 기혼 남성들중 48%가 장남이라는 점에서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인구층에서 보수적인 성향을 띄는 집단에 해당한다고 사료된다.

## 2. 측정도구의 구성

자아상태는 한국판 표준화 이고그램 측정도구(우재현, 1995 b)를 부부관계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으며, 6점 likert 로 측정하였다. 측정된 자아상태는 군집분석(k-means)을 이용하여 성별로 유형화할 수 있었다. 그 결과 기혼남성의 경우 부부관계에서 특별한 개성이 나타나지 않는 순응형, 제멋대로이며 독선적인 지배형, 자신감이 강하고 냉철하며 자기중심적인 목표형, 자신과 상대를 적절히 배려할 수 있는 이상형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기혼여성은 남편에게 의존하는 순종형, 자신과 상대에 대한 불만을 억압하는 불만형, 자신의 가치관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잔소리형, 합리적이며 성숙한 이상형으로 분류하였다.

문제인지는 부부내부문제와 부부외부문제로 나누어서 부부문제에 대한 심각성 지각으로 평가하였으며, 5점 likert로 측정하였다.

문제해결행동에 대한 측정은 최혜경, 노치영(1994)의 측정도구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문제해결행동은 문제해결 차원과 관계유지 차원에서 3가지 요인으로 나눌 수 있었다. 즉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서 관계를 긍정적으로 유지하는 긍정적 행동, 문제자체를 부인하거나 관계자체를 피하는 회피적 행동, 문제해결에서는 적극적이지만 관계유지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부정적 행동으로 요인화할 수 있으며, 5점 likert로 측정하였다. 또한 측정

한 문제해결행동은 군집분석(k-means)을 이용하여 성별로 유형화할 수 있었다. 그 결과 기혼남성의 경우 긍정적 행동을 특징으로 하는 건설형, 회피적 행동을 특징으로 하는 회피형, 부정적 행동을 특징으로 하는 파괴형, 문제해결을 위한 어떠한 시도도 별로 하지 않는 수동형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기혼여성은 회피적 행동을 가장 많이 하는 회피형, 여러가지 행동을 시도하는 다양형, 부정적 행동을 특징으로 하는 파괴형, 다른 유형들과 비교하여 회피적 행동과 부정적 행동을 적게 하면서 긍정적 특성이 어느정도 나타나는 수동형으로 분류하였다.

결혼적응은 부부문제해결효율성과 결혼만족도로 측정하였다. 부부문제해결효율성은 문제해결행동들이 부부관계유지와 문제해결 측면에서 효과적이었는지에 대한 평가이며, 결혼만족도와 함께 5점 likert로 측정하였다. 측정도구들의 신뢰도는 내적일치도에 의한 Cronbach's  $\alpha$  계수로서,

.65 ~ .91에 이르렀다. 측정도구들의 타당도는 자아상태, 문제인지, 문제해결행동, 부부문제효율성, 결혼만족도 측정도구에 대한 준거관련타당도(criterion-related validity)와 자아상태, 문제인지, 문제해결행동에 대한 구인타당도(construct validity)를 구하였다.<sup>1)</sup>

## 3. 자료 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는 SPSS for WINDOWS 6.01 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 요인분석, 일원변량분석, 군집분석의 k-means, 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 IV. 연구결과 및 논의

### 1. 남편과 아내의 문제해결행동 조합에 따른 결혼 적응의 차이

연구가설 1-1을 검증하기 위해서 문제해결행동 유형을 기능적-역기능적 유형으로 재분류한 후 남편과

1) 노치영(1996), 한국 부부의 부부문제해결과정,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pp. 31-35, 103-105

〈표 1〉 남편과 아내의 문제해결행동 조합에 따른 부부문제해결효율성  
차이에대한 일원변량 분석 및 추후분석

부부 문제해결 효율성	부부문제해결 효율성										
	부부관계 증진 효과						문제해결 효과				
	남 편			아 내			남 편			아 내	
	$\bar{M}$ (SD)	F	Scheffe 검증	$\bar{M}$ (SD)	F	Scheffe 검증	$\bar{M}$ (SD)	F	Scheffe 검증	$\bar{M}$ (SD)	F
부부문제 해결행동 조합 (남편-아내)											
기능적-기능적 (N=76)	4.16 (.43)		A	4.00 (.43)		A	3.67 (.89)		A	3.09 (.95)	
역기능적-역기능적 (N=59)	3.69 (.56)	6.76***	B	3.58 (.70)	5.75***	B	2.83 (.99)	8.35***	B	2.71 (1.02)	1.87
기능적-역기능적 (N=68)	3.88 (.80)		A B	3.85 (.68)		A B	3.37 (1.09)		A	3.09 (1.19)	
역기능적-기능적 (N=22)	3.81 (.59)		A B	3.86 (.47)		A B	3.18 (.91)		A B	3.09 (1.02)	

\* p <.05 \*\* p <.01 \*\*\* p <.001

아내의 문제해결행동의 조합이 남편과 아내의 결혼적응(부부문제해결효율성과 결혼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살펴보았다.<sup>2)</sup>

그 결과 남편과 아내의 부부문제해결효율성은 부부관계를 증진시키는 효과면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남편 : F= 6.76, p <.001, 아내 : F= 5.75, p <.001). 그러나 문제해결 효과면에서는 남편의 경우에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남편 : F= 8.35, p <.001). 즉 남편은 아내와 상호 기능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조화를 이룰때 부부관계 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지각하였으며, 또한 아내의 행동과는 관계없이 남편이 기능적으로 문제를 해결할때 문제해결이 효과적이라고 지각하였다. 이것은 부부간에 상호 역기능적

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조화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반면 아내는 남편과 상호 기능적으로 문제를 해결할때 부부관계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지각할뿐, 문제해결 효과면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표 1).

이와같은 결과는 남편과 아내 모두 남편의 행동에 따라서 부부문제해결의 효율성을 지각한다는 점을 시사해주고 있다. 즉 부부문제해결은 남편이 해결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부부는 남편이 기능적으로 행동하므로써 문제해결의 효율성을 지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아내의 경우 남편과의 상호 기능적인 문제해결행동 조화가 부부관계를 증진

2) 노치영, 전계서, pp. 57-58.

부부문제를 덜 심각한 것으로 지각하는 사람들일수록 문제해결행동이 수동형이나 건설형의 유형에 속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수동형이나 건설형은 비교적 기능적인 문제해결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회피형이나 다양형, 파괴형은 역기능적 유형이라 할 수 있다.

〈표 2〉 남편과 아내의 문제해결행동 조합에 따른 결혼만족도차이에 대한 일원변량 분석 및 추후검증

부부문제 해결행동 조합 (남편-아내)	결혼만족도		결혼 만족도			
			남 편		아 내	
	평균 (표준편차)	F	Scheffe 검증	평균 (표준편차)	F	Scheffe 검증
기능적-기능적 (N=76)	3.23 (.73)	7.73***	A	2.85 (.91)	14.67***	B
역기능적-역기능적 (N=59)	2.59 (.93)		B	1.95 (.93)		C
기능적-역기능적 (N=68)	2.96 (.90)		A B	2.16 (1.06)		C
역기능적-기능적 (N=22)	3.33 (.66)		A	3.00 (.66)		A

\* p <.05 \*\* p <.01 \*\*\* p <.001

시키는 데는 효율적인데 반해서 문제해결에서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는 아내가 남편과의 대화에만 초점을 두어 문제해결을 포기하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문제해결행동 조합에 따라서 남편과 아내의 결혼만족도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남편 : F=7.73, p <.001, 아내 : F=14.67, p <.001). 남편과 아내의 결혼만족도는 남편의 행동과는 관계없이 아내가 기능적으로 행동할 때 유의하게 높았다(표 2).

이와같은 결과를 통해, 남편은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자기 노력과는 관계없이 아내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결혼에 대해 만족하는 반면, 아내는 스스로 부부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할때 결혼에 대해서 만족함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부부의 문제해결행동 조합이 결혼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결과들을 통해서 볼때, 남편의 기능적 문제해결행동은 남편과 아내가 지각하는 부부문제해결효율성을, 아내의 기능적 문제해결행동은 남편과 아내가 각각 지각하는 결혼만족도를 높이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남편과 아내의 결혼에 대한 다른 기대를 나타내는 한국 부부관계의 가부장적 구조를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남편과 아내의 자아상태와 문제해결행동 조합에서 문제인지의 매개적 역할

본 연구문제는 남편과 아내의 문제해결행동 조합에 따라서 남편과 아내의 결혼적응의 차이를 보였기 때문에(표 1, 2), 남편과 아내의 문제해결행동 조합의 차이를 가져오는 과정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우선 문제인지에 대하여 성별 군집분석(k-means)을 실시하여 부부내부문제와 외부문제를 심각한 것으로 지각하는 유형과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지각하는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그런다음 자아상태 유형, 문제인지 유형, 문제해결행동 유형을 남편과 아내의 조합 관계로 재분류하였다. 즉 남편과 아내의 자아상태 유형<sup>3)</sup>은 남편과 아내 모두 기능적 자아상태를 갖고 있는 조합, 둘

3) 노치영, 전개서, pp. 51-56.

중 하나만 기능적 자아상태를 갖고 있는 조합, 둘 다 역기능적 자아상태를 갖고 있는 조합으로 재분류할 수 있었다. 남편과 아내의 문제인지 조화는 남편과 아내 모두 부부문제를 심각한 것으로 지각하는 조화, 둘 중 하나만 부부문제를 심각한 것으로 지각하

는 조합, 둘 다 부부문제를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지각하는 조합으로 재분류할 수 있었다. 또한 남편과 아내의 문제해결행동 조합은 두 사람 모두 역기능적인 조합과 그 나머지로 재분류하였다.

본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남편과 아내의 자

〈표 3〉 남편과 아내의 문제해결행동 조합에 대한 Logistic Regression

		b	SE	p	Exp(b)
모델 1	남편-아내의 자아상태 조합				
	역기능적-역기능적	-.55	.32	.081	.58
	기능적-역기능적	.13	.26	.606	1.14
	역기능적-기능적	-.79	.28	.005	.45
	상 수	.84	.16	.000	
	모 델 $\chi^2$ df	25.45** 3			
모델 2	남편-아내의 자아상태 조합				
	역기능적-역기능적	-.58	.37	.115	.56
	기능적-역기능적	.27	.31	.378	1.31
	역기능적-기능적	-.50	.33	.130	.60
	남편-아내의 문제인지 조합				
	높은 심각성-높은 심각성	-1.83	.32	.000	.16
	낮은 심각성-높은 심각성	.71	.34	.038	2.03
	높은 심각성-낮은 심각성	-.04	.37	.912	.96
	상 수	.73	.20	.000	
모 델 $\chi^2$ df	48.59*** 1				

\*  $p < .05$  \*\*  $p < .01$  \*\*\*  $p < .001$

기혼남녀의 이상형과 기혼남성의 순응형, 기혼여성의 순종형 자아상태가 부부문제를 비교적 덜 심각한 것으로 지각하며 문제해결에서도 건설적 혹은 수동적 행동을 보인다는 점에서 기능적 유형이라 할 수 있다. 반면 기혼남성의 지배형이나 목표형, 기혼여성의 불만형이나 잔소리형은 부부문제를 심각한 것으로 지각하며 부부문제도 비교적 부정적 혹은 다양한 행동으로 해결한다는 점에서 역기능적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태 조합과 문제인지 조합을 독립변수로 하고 문제해결행동 조합에 대해 이분화 시킨 변수(역기능적 조합 : 1, 나머지 조합 : 2)를 종속변수로 하는 단단계 logistic regression 을 실시하였다. 이때 남편과 아내의 자아상태 조합에서 둘 다 기능적인 자아상태를 갖고 있는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문제인지 조합에서는 둘 다 문제를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지각하는 조합을 준거 명목으로 하여 가변수 처리하였다.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모델 1은 남편과 아내의 자아상태 조화와 문제해결행동 조합 간의 유의한 관계성을 보여주고 있다 ( $\chi^2 = 25.45$ ,  $df = 3$ ,  $p < .001$ ). 남편과 아내의 자아상태 조합면에서 남편이 역기능적인 자아상태를 갖고 있을 때, 특히 아내가 기능적 자아상태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역기능적 자아상태를 갖고 있을 때 부부가 문제를 상호 역기능적 행동으로 해결하였다( $b = -.79$ ,  $p < .005$ ).

남편과 아내의 자아상태 조합에 문제인지 조합을 첨가한 모델 2에서도 문제해결행동에 대해서 유의한 관계가 나타났다( $\chi^2 = 48.59$ ,  $df = 1$ ,  $p < .01$ ). 그러나 모델 1에서 유의했던 부부의 자아상태 조합은 모델 2에서는 유의하게 설명되지 않았고, 남편과 아내가 둘 다 부부문제를 심각한 것으로 지각하는 조합을 이룰 때 부부가 상호 역기능적 행동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b = -1.83$ ,  $p < .000$ ). 특히 아내가 부부문제를 심각한 것으로 지각할지라도 남편이 심각하지 않으면 부부문제를 상호 역기능적으로 해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b = .71$ ,  $p < .038$ )<표 3>.

<표 3>의 결과에서 볼 때 부부의 문제인지 조합은 자아상태 조합과 문제해결행동 조합과의 관계에서 매개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남편과 아내의 문제해결행동 조합은 문제상황 특성이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부부의 자아상태 조합은 문제인지를 통한 간접적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또한 부부의 문제해결행동 조합이 상호 역기능적인 것은 남편의 역기능적 자아상태나 문제인지의 영향 때문이라는 결과는 한국의 부부관계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주목할 만하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남편과 아내의 문제해결행동 조합이 남편과 아내 각각의 결혼적용의 차이를 가져오는 과정을 연구하였다.

본 연구결과들을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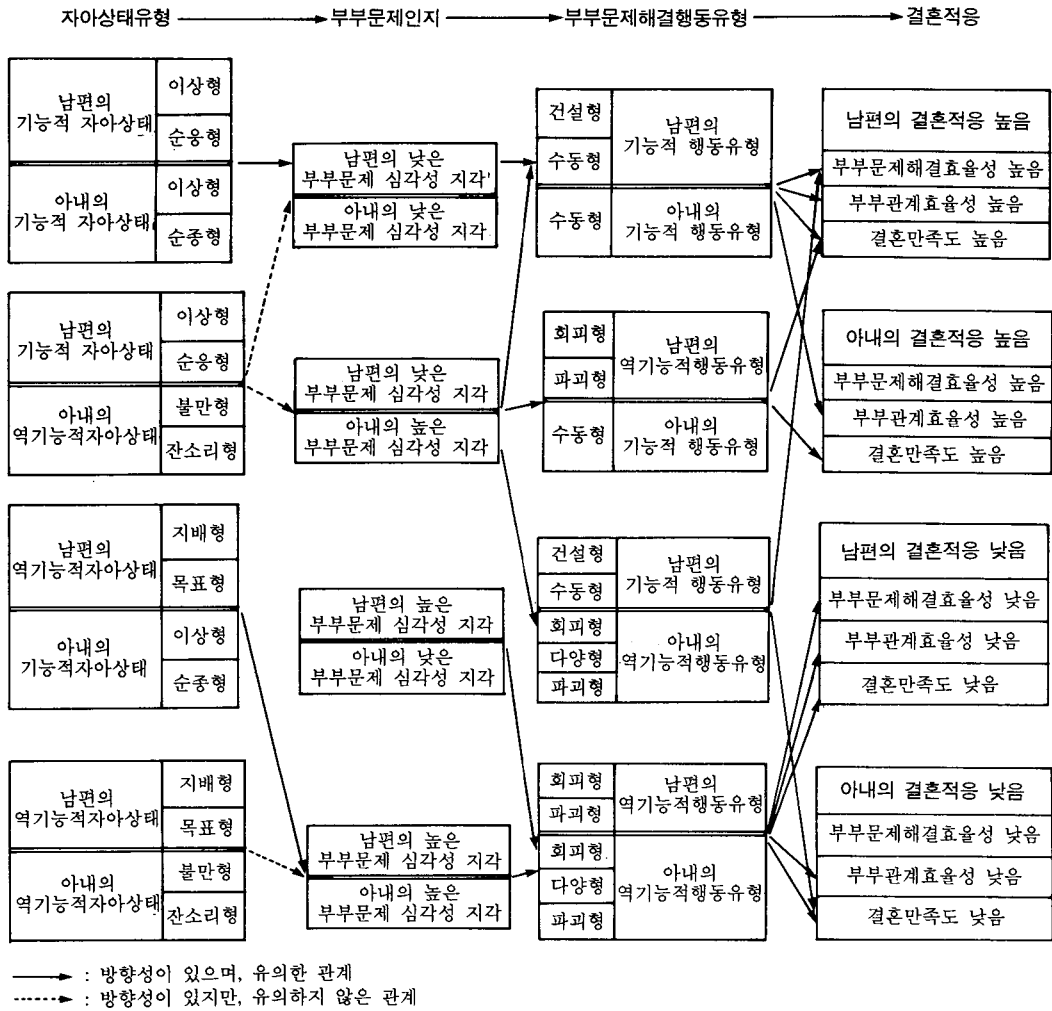
첫째, 부부의 문제해결행동의 조합에 따라 남편과 아내의 결혼적용의 차이가 있었다. 즉 부부문제해결 효율성 면에서 남편과 아내 모두 남편의 기능적인 행동에 따라서 부부문제해결의 효율성을 지각하였다. 한편 아내의 경우 남편과의 상호 기능적인 문제해결행동 조화가 부부관계를 증진시키는데 효율적인데 반해서 문제해결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결혼만족도 면에서 남편의 행동과 관계없이 아내가 기능적인 행동으로 문제를 해결할 때 남편과 아내 모두 결혼에 대해 만족했다.

둘째, 결혼적용의 차이를 가져오는 부부문제해결행동을 결정하는 것이 인지와 같은 상황적 특성이며, 자아상태와 같은 안정된 속성의 영향은 간접적이었다. 또한 이 과정에서도 아내의 인지보다 남편의 인지가 보다 중요하게 영향을 미쳤다.

이상의 부부문제해결 과정을 통한 부부관계의 특성을 본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부부문제해결에 대한 검증모형을 설정하였으며, 그림 2와 같다. 그림 2의 검증모형을 통해서 한국의 부부관계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즉 자아상태와 문제인지에서 상호 기능적인 부부유형은 문제해결행동에서도 기능적으로 상호작용하여 결혼적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남편이 역기능적인 행동을 할 지라도 아내가 기능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경우는 남편의 자아상태가 기능적이어서 문제에 대해서도 심각한 것으로 지각하지 않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도 부부문제해결에는 효율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결혼만족도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편 자아상태와 문제인지에서 남편이 역기능적인 부부유형들은 부부간에 역기능적인 상호작용을 하여 결국 결혼적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상의 부부문제해결에 대한 검증모형에서 시사하



〈그림 2〉 본 연구의 부부문제해결에 대한 검증모형

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부문제해결에 대한 과정차원에서 볼때, 자아상태와 문제해결행동의 관계에서 부부문제인지가 매개적 역할로서 강조된다. 따라서 부부문제해결을 변화시키는 과정은 인지적 접근을 시도하는 것이 행동수정과 자아상태 수정을 함께 이루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부부문제해결 중재프로그램에서의 중재변수는 문제인지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부부문제해결에서 부부관계의 역동성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부부관계 유지는 아

내의 긍정적인 노력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지만, 보다 기능적인 부부관계로의 향상은 남편에 달려 있는 것으로 한국의 가부장적 부부관계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부부문제를 중재해주는 프로그램에서는 남편의 부부문제해결과정을 수정하는데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검증된 중재를 필요로 하는 집단은 남편과 아내가 모두 상호 역기능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부부유형과 남편이 기능적-아내는 역기능

적으로 부부문제를 해결하는 부부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상호 역기능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부부유형은 두 사람 모두 역기능적 특성을 갖고 있거나 혹은 남편의 역기능적 특성이 아내에게 영향을 미치는 관계이기 때문에, 관계적 중재를 필요로 한다. 한편 부부관계의 주도권이 남편에게 있다는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볼때 남편이 기능적임에도 불구하고 아내의 결혼적응이 낮은 것은 앞으로 좀더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부부유형은 상호 상대방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보아 지므로 관계적 중재를 필요로 한다고 볼 수 있다.

넷째, 본 연구의 부부문제해결에 대한 검증모형을 통해서 볼때, 성공적인 부부관계란 남편과 아내가 상호 기능적으로 작용하므로써 부부간에 상호 욕구가 무엇인지를 인지하며 균형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호혜성을 유지하는 관계임을 입증했다고 할 수 있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의의,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해보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결과는 결혼 1~10년 이내의 중상층에 해당하는 것으로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제한점을 갖고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남편과 아내의 자아상태와 문제인지, 문제해결행동의 관계를 유형별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를 해석할 때는 상대적 집단차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와같은 연구상의 제한점이 있지만, 본 연구는 몇 가지 의의 때문에 학문적으로나 실천적인 면에서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본다.

첫째, 본 연구는 부부문제해결에 대해서 '자아상태-문제인지-문제해결행동'의 연계성을 갖는 과정과 부부관계의 역동성을 파악하여 검증모형을 설정하는 등 이론정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가 있으리라 본다.

둘째, 본 연구는 검증모형을 통해서 부부문제해결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집단을 발견하였으며 중재변수를 설정하였기 때문에 중재프로그램 구성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실천적 가치가 있으리라 본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부부

문제해결에 대한 검증모형을 토대로 구체적인 중재 프로그램이 계획되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1) 권 희완(1992). 부부관계의 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의 부부관계, 여성한국사회연구회(편). 서울 : 사회문화연구소, 35-70.
- 2) 김성희, 문 숙재(1989). 자아실현성과 공동 의사결정에 관한 연구 - 남편과 부인을 중심으로 -. 한국가정관리학회지, 7(2), 163-178.
- 3) 김양희(1986). 한국 도시인의 가족갈등에 관한 연구 - 서울시거주 표본 조사를 중심으로 -. 중앙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4) 김정옥(1985). 도시부부의 갈등해결표출방법에 관한 연구-폭력행위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23(2), 91-110.
- 5) 라자러스, R. S., 포크만, S.(1984). 스트레스와 평가 그리고 대처, 김 정희(역). 서울 : 대광문화사, 1992.
- 6) 우재현(1995a). 임상교류분석(TA) 프로그램. 대구 : 정암서원(한국교류분석협회).
- 7) 우재현(1995b). 이고그램 243 패턴. 대구 : 정암서원(한국교류 분석협회).
- 8) 유은희(1994). 상담가족에서의 부부갈등의 원인지각과 상호작용형태. 한국가족치료학회지, 2, 77-88.
- 9) 이정순(1991). 부부간 커뮤니케이션 유형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9(3), 175-190.
- 10) 조혜정(1988). 가부장제의 변형과 극복 : 한국 가족의 경우. 한국여성연구, 2, 136-201.
- 11) 최규련(1994). 가족체계 유형과 부부간 갈등 및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2), 140-152.
- 12) ——(1988). 한국 도시부부의 결혼만족도 요인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13) 최혜경, 노치영(1994). 기혼남녀의 부부간문제해결행동유형.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2), 261-272.
- 14) 최혜경, 박 의순, 노 치영(1994). 결혼초기 부부를 위한 부부 교육프로그램의 구성. 한국가정관

- 리학회지, 12(1), 171-180.
- 15) 현은민(1994). 주부의 내외통제성과 갈등관리방법.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2), 195-204.
  - 16) Cappella, J. N.(1987). Interpersonal communication: definitions & fundamental questions, eds. by C. R. Berger & S. Chaffe, In *Handbook of Communication Science*, Newbury Park, CA : Sage, pp. 184-238.
  - 17) Choi, H.(1992). *The Process of Caregiving Stress among Korean Caregivers for the Elderly : Social Support Coping and Psychological Health*. Unpublished manuscript, Cornell Uni.
  - 18) Christensen, A. & Heavey, C. L. (1990). Gender & social structure in the demand and/withdraw pattern of marital conflic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1), 73-81.
  - 19) Fincham, F. D. & Bradbury, T. N. (1987). The impact of attributions in marriage : A longitudinal analy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3(3), 510-517.
  - 20) Fitzpatrick, M. A. (ed.) (1988). *Between husbands and wives : Communication in marriage*. Newbury Park, CA : Sage.
  - 21) Gottman, J. M. (1993). The roles of conflict engagement, escalation, and avoidance in marital interaction: A longitudinal view of five types of couple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1(1), 6-15.
  - 22) Granvold, D. K. & Jourdan, C. (1994). The Cognitive-behavioral treatment of marital distress. ed. by D. K. Granvold, In *Cognitive and Behavioral Treatment: Methods and Applications*, CA: Brooks/Cole Pub. Company, pp. 174-201.
  - 23) Heavey, C. L., Layne, C., & Christensen, A. (1993). Gender and conflict structure in marital interaction : A replication and extensio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1(1), 16-27.
  - 24) Heppner, P. D. & Krauskopf, C. J. (1987). An information processing approach to personal problem solving. *The Counseling Psychologist*, 15(3), 371-447.
  - 25) Holroyd, K. A., Reynolds, R. V., & Wigal, J. K. (1989). The hierarchical factor structure of the coping strategies inventory.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3(4), 343-361.
  - 26) Miller, P. C., Lefcourt, H. M., Holmes, J. G., Ware, E. E., & Saleh, W. E. (1986). Marital locus of control and marital problem solving. *Journal of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51(1), 161-169.
  - 27) Parkes, K. R. (1984). Locus of control, cognitive appraisal, & coping in stressful episod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6(3), 655-668.
  - 28) Witteman, H. (1988). Interpersonal problem solving: problem conceptualization and communication use. *Communication Monographs*, 55(Dec.), 336-359.